

(2019학년도 서울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합격수기)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곧 합격할 선생님들!♥ 19년도 서울 합격생입니다.

저는 전문대 유아교육과 졸업 후 바로 사립유치원 담임으로 취직하여 6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론 좋은 사립도 많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며 다양한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에 부딪히며 고민 끝에

임용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일병행, 3월부터 올인하여 초수로 꿈같은 합격을 했습니다, ♥

고득점, 높은 석차로서의 합격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수기를 읽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수기를 써내려갑니다. 분명 2020학년도 임용의 주인공은 선생님이 되실거예요!♥

응시지역	서울		수강방식	인강
공부경력	초수		병행 여부	1,2월 일 병행 / 3월~ 올인
1차 점수	1차 점수	논술: 17, 교육과정:71	2차 점수	83.03
	1차 총점	88 (컷+2)	총점	171.03 (컷+1)

2. 연간 수험생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월별목표	#공부하는 습관 기르기 고시문: 암기(타이핑) 개론: 강의 밀리지 않고 듣기+개념 이해하기 해지: 친숙해지기 (해지랑 통으로 읽기 표 참고)		#나 자신을 알라 #꾸준히 공부하기 고시문: 한 영역씩 매일 쓰기(타이핑 or 손글씨) 개론: 파트 나누어 복습(이해한 것 확인, 개념 넓히기) 각론: 강의 밀리지 않고 듣기+개념 이해하기 해지: 각론의 이론을 해지서와 연결시키기(강의 부분) 논술: 논술 작성 법 익히기, 기출 분석 및 작성(논알못) 법: 법 차근차근 암기하기(기본 법에서 차차 추가) 기출: 강의 들으며 기출 파악, 유형 익히기 안전: 안전강의 모두 듣고 정리하기(3-4월)			
강의	민쌤의 개론강의		민쌤의 누리과정 / 기출 / 안전 강의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별목표	#내 것으로 만들기 고시문: 매일 쓰기(손글씨) 개,각론: 오개념 고치기, 개념 심화확장 구조화 및 암기(웹지도 단권화) 해지: 기출식으로 문제 만들기, 암기하기 논술: 일주일에 3편 쓰기 논제 공부하기 법: 반복 암기(*특독2!!) 안전: 매일 나누어 보기		#나를 믿기, 멘탈 굳히기 고시문: 매일 쓰기(손글씨) 개,각론: 오개념 찾아 고치기 정확한 이해와 암기점검(10월~시험 전 *5회독) 해지: 연령별 차이, 지도지침 및 유의점에 더욱 집중 논술: 일주일 3~4편 쓰기 논제별 중요키워드 암기 법: 특독2 빈칸 바꾸어 풀기 안전: 매일 나누어 보기(암기)			1주일정도 휴식 & 3일 여행 면접: 기출, 뉴스, 책 읽기, 서울시 정책 이해 및 암기, 매일 촬영하여 피드백하기 수업: 매일 1개 촬영하여 피드백 과정안: 필사, 예시문제로 작성	
강의	민쌤의 문제풀이 강의		민쌤의 모의고사 강의			민쌤 2차 강의(인강)	

3. 1차 수험생활

하루 공부 시간	매 달 하루 목표공부시간을 정해놓고 달성여부에 따라 다이어리에 표시를 했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H	3H	5H	7H	8H	8H 30M	9H	10H	11H		
	한 달에 평균 OFF DAY 3~4일							OFF 1일			
											
	6월→10월										
	<p>〈하트가 그려진 날이 적은 것 보이시죠?〉 ♥하트!파!티!♥</p> <p>이런 식으로 달성한 시간에 따라 색깔과 모양을 달리하여 매일 표시하다보니 분홍색 하트로 다이어리를 꽉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 더 노력하게 되었어요. 점차 하트가 많아지는 월간 달력을 보면 엄청 뿌듯하고, 성취감도 들었습니다.</p>										
공부 사이클	저는 굉장히 올빼미형이고 의지박약이라 조금 강제?적이라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다녔어요! 도서관은 일찍 가서 자리도 맡아야하고 또 친구와 함께 다니다보니 안갈 수가 없어서 힘든 날에도 기다리고 있을 친구 생각이 나서 꾸역꾸역 열심히 다닐 수 있었어요.										
	1-2월	<p>일병행이었고 야근이 굉장히 많은 유치원이어서 거의 퇴근하고 9~10시쯤 책상에 앉을 수 있었어요. 평균 1-2시간 공부하고 거의 바로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 때는 최대한 주말 시간을 활용했어요.</p>									
	3-6월	<p>-평균적으로 8:30~9:00 사이에 도서관에 착석 *오전공부가 잘 되는 편이라 착석하고 밥 먹기 전까지 최대한 집중하기 위하여 노력했어요! -12부터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점심식사 및 휴식 -5~6시까지 공부 후 40~50분 정도 간식 -8:30분~9시 까지 공부 후 퇴실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이클을 지키며 꾸준히 공부했어요. 힘든 날엔 조금 더 일찍 집에 가기도 하고 공부가 잘 되는 날은 더 늦게까지 남아 융통성있게 시간을 조절하며 공부했어요.</p>									
7-11월	<p>-위와 비슷한 싸이클에서 도서관 착석 시간을 차차 당기고, 퇴실 시간은 늦췄어요. 10-11월엔 매일 도서관 7시 착석, 11시 퇴실을 했습니다.</p>										
쉬는 시간 (올인할 때)	<p>- 점심 먹은 후 20분정도 산책, 근처 카페에서 커피마시기 등 휴식 - 공부하며 틈틈이 휴식(5분~15분/화장실 다녀오기, 스트레칭, 앞드려 낮잠 자기 등)</p>										
공부 장소	<p>- 1년 동안 친구 2명과 함께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다녔어요. - 장점: 무료라 금액부담이 없음, 매일 다니다 보니 도서관에 있는 시간동안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도서관에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을 땐 각론서 등 책을 빌려볼 수 있음. - 단점: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일찍 가야 함, 시간에 따라 앉은 자리 연장을 해야 함, 연장하는 것을 깜빡하면 자리를 옮겨야하는 사태 발생. - 공태기가 왔을 땐 가끔 집, 다양한 카페 등을 다니며 환경을 바꿔 새로운 곳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등 연휴 때는 스터디 카페를 등록하여 다녔어요.</p>										

4. 각 과목별 공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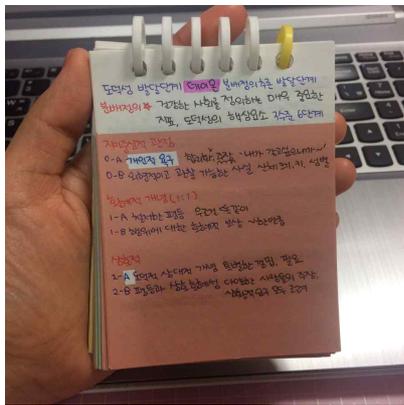
- 1차 : 각론, 개론, 논술, 교육과정(해지), 고시문, 법

1. 읽기(강의 교재, 각론서)

저는 개론과 각론 모두 강의를 들은 후 강의 교재를 굉장히 여러번 읽었어요. 처음에는 편안하게 주욱 읽으며 샤프로 줄을 치고, 두 번째 읽을 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가며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끔 단어도 너무 어렵고, 문장 자체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땐 키망쌤께서 블로그에 추천해주신 해당 각론서를 도서관에서 빌려 보았어요. 아무래도 강사님 책에는 요약이 많이 되어있지만 각론서에는 더 풀어서 쉽게 쓰여져있어 이해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었답니다. 전 특히 의사소통과 사상사를 각론서를 읽으며 이해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읽을 때 중요한 점은 그냥 의미없이 계속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생각하며 읽는 것이었어요!

2. 합격 핸드북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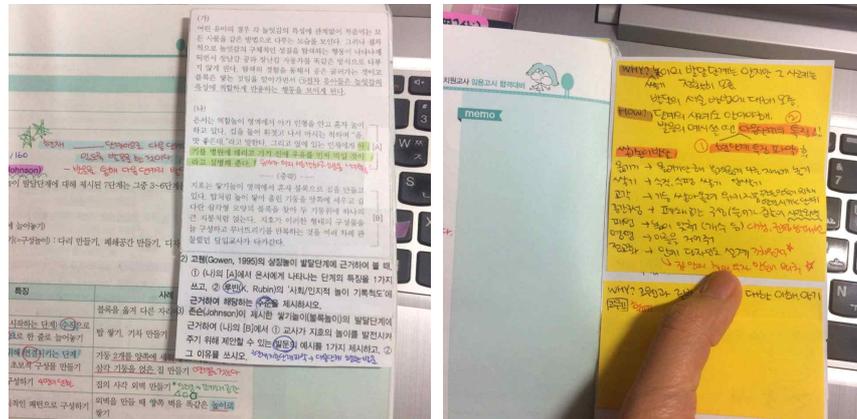
사실 저는 제가 서브노트 등을 만들 엄두도 안나고 요약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민쌤 합격자 선생님의 개각론 서브노트, 해지 합본 등을 다운받아 그 곳에 요약을 하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만든 것이 아니다 보니 많이 요약되어있는 부분은 제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떡메모지에 읽고, 이해한 것들을 최대한 간추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뽑아 저만의 이해 지도와 같은 합격 핸드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책을 보고 베끼다가 보다는 읽고 쓰며 어느 정도 이해된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써내려가니 더 이해를 견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다보니 들고 다니기가 편해 주말에 놀러갈 때, 화장실에서 등등 자주 보려고 노력했어요.

3. 문제풀기

자신이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예를들어 백지쓰기, 설명하기, 문제풀기 등등 저는 그 중에서도 문제풀기와 말로 설명하기가 가장 잘 맞았어요.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할 때 동그라미를 칠 때의 그 쾌감도 좋았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잘 못 이해하거나 적용이 안되는 것 등을 발견할 수 있어 스스로를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민쌤이 주신 확인학습 문제를 연습장에 따로 풀고 틀린 것은 프린트물에 체크를 해두어 2-3번 정도 다시 보고, 또 풀어보았어요. 그리고 문제풀이만 때는 틀린 문제를 웹지도 해당 페이지에 분석하여 붙이고 돌려볼 때 반복하여 보며 오개념을 잡아갔어요.

개론
각론



포스트잇에 *Why? 틀린 원인 분석 / How?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 분석 / You must! 따라서 다시 이해해야 할 것 또는 외워야 할 것 등 적어보기

	<p>4. 구술스터디</p> <p>앞의 스터디에서 말씀드렸던 구술 스터디! 저는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제가 중얼거리고 이야기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리고 말하며 머릿속에 흩어져있는 개념들이 한 데로 모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취약했던 의사소통, 자연탐구 등은 동생, 남자친구 등에게 가르쳐 주듯이 설명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했던 생각이 나요.</p>
<p>논술</p>	<p>1. 필사</p> <p>저는 정말 논.알.못 이었어요.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구요. 평소에도 책을 많이 읽거나,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논술 기초강의를 들으며 ‘내가 진짜 이걸 쓸 수 있을까?, 노력하면 정말 될까?’ 하는 걱정 가득이었답니다. 그래서 3~4월 기초강의를 들을 땐 예시 답안 필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땐 의미 없이 쭉쭉 따라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반부에는 그냥 따라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생각하며 머릿 속에서 한번 더 정리하고 옮겨쓰고, 필사한 것을 보며 논술 역개요도를 짰어요. 이 때 역개요도를 만들었던 것이 글쓴이의 의도, 접근 방법 등을 느끼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p> <p>2. 1주일에 2~3편</p> <p>시험을 보기 전까지도 논술을 하루에 한편은 쓰지 못했어요. 예를들어, 월요일: 논술 작성/피드백, 화요일(~수요일): 논제에 대한 공부와 요약, 피드백 반영 하여 논술 고쳐쓰기 등과 같이 한 문제를 2~3일 정도에 걸쳐 연습하고 공부했어요. 하지만 논술을 쓸 때 꼭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은 6월정도 부터는 타이머를 맞추고 실제 시험 처럼 문제 파악, 개요도 작성, 개요도 토대로 논술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개요도 작성/개요도 토대로 논술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하는지를 확인 하였어요. 이렇게 실전처럼 연습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논술을 쓸 때 실제 키망쌤의 논술 노트를 활용하였어요. 실제 시험지 크기와도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쓰여지는 글자의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쓴 논술을 모아볼 수 있어 편리하였어요!</p> <p>3. 논제 요약정리</p> <p>친구의 도움을 받아 시험장에 갔을 때 빠르게 볼 수 있도록 논제 별 서론과 결론에 쓸 수 있는 좋은 문장과 필요한 배경지식 등을 요약해놓았어요. 시험장에 갔을 때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약자료가 모의고사 반 때도 돌려보며 논제에 대한 공부와 약간의 암기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p>
<p>교육과정 (해지)</p>	<p>1. 해지량</p> <p>저는 키망쌤의 해지량을 정말 좋아해요. 해지량이 있어서 해설서, 지침서는 따로 한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쌤 강의를 들을 때도 해지량에 강의를 필기하고 1월부터 계속해서 공부하는 영역에 맞춰 해지량을 반복적으로 읽어나갔어요. 제가 생각하는 해지량의 장점은 -기출문제 파악이 가능하다, 관련 이론을 연결 지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임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몰랐던 1~2월에 해지량을 읽으며 옆쪽에 실린 기출문제를 보고 임용고시 문제에 대한 대충의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지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파악이 가능하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지 반복적으로 읽다보니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해지서와 공부한 이론적 내용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거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이 부분은 해지량을 보면 ‘아! 이런 부분이 녹아있는 거구나.’ 하고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지량을 읽을 때에도 개.각론 복습이 자연스럽게 되었답니다. (+법까지도요!) 모의고사 반 때는 민쌤의 최종 해지서 요약본에 해지량에 있는 기출과 이론 등을 더하여 조금 더 빠르게 돌려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어요.</p>
<p>고시문</p>	<p>1. 포켓고시문, 매일 한영역씩 반복 또 반복</p> <p>임용 결심 후 1월에 키망쌤 블로그의 고시문 카드를 다운받아 A4 1/4 사이즈로 오리고 코팅하여 고리링을 걸었어요. 그리고 틈틈이 보며 1월부터 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진짜 외워질까? 하는 불신 가득이었는데 외워져요, 정말 신기하게도 외워지더라고요</p>

	<p>요! 그러니 너무 걱정마시고 계속 반복, 또 반복하시면 분명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손이 아파 타이핑으로 외우고, 점검했구요 그 후엔 매일 한 영역씩 쓰고 틀린 부분은 댕메모지에 다시 써놓고 그 날 책상에 붙인 후, 틈 날 때마다 보고 중얼거렸어요.</p>
법	<p>1. 톡톡2 법은 참 포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싫은,, 그런 영역이었어요.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7~8월 정도부터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루에 30분정도의 시간을 법을 보는 데 투자하였고요, 민쌤께서 유아 임용에 관련된 법 프린트물은 모두 제공해주셨기 때문에 중요 단어 등을 하이라이트 쳐서 외워 가며 공부하였어요. 그러다가 키망쌤의 '톡톡2'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바로 구매하였는데 정말 법을 재미있게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기출문제가 모두 실려있고, 기출 스타일에 맞추어 중요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어있어요. 같은 법이라도 괄호쳐져 있는 부분이 다르고, 또 반복되어 쉽게 속속 풀며 확인만 해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었어요. 저는 책에 직접 풀지 않고 연습장에 풀어 시험보기 전에 2번 정도 돌려 보았어요!</p>

- 1차: 스터디

자신이 활용한 스터디	<p>*저는 같이 공부하는 2명의 든든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스터디를 2명의 친구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명의 친구와 함께 진행한 오프라인 스터디> -생활스터디(3월~11월):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을 다녔기 때문에 매일 도서관에 갈 수 있었고, 강제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를 보며 저도 더 일찍 일어나 착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점심, 간식 등 시간을 정해 공부하며 규칙적인 일과를 보낼 수 있었어요. -문제내기 스터디(3월~10월): 매일 공부한 영역을 토대로 개.각론, 법, 안전, 해지를 한 문제씩 내서 밴드에 공유하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며 함께 문제를 풀고 모르는 것은 서로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논술스터디(5월~10월): 민쌤 문제로 논술을 쓰고 서로 바꾸어 읽어본 후 피드백을 하였어요. 제가 작성한 논술을 읽을 땐 잘 쓴 부분과 고쳐야 할 부분을 찾는 것이 어려웠는데 확실히 피드백을 받으니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논제이지만 모두 쓰는 방식, 생각 등이 달라 좋은 문장은 참고하여 써놓고 함께 논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며 많은 공부가 되었어요! -구술스터디(7월~9월): 작년 민쌤 합격자 선생님의 암기 목록표를 토대로 한 주간 공부 한 것을 셋이 돌아가며 서로에게 설명하고 질문하였어요. 룰렛 어플을 사용하여 나오는 번호의 개념을 설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목록표를 토대로 꼼꼼히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요! 저는 이 구술스터디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밴드 스터디> -중요도 스터디(3월~11월): 각 강사별로 선생님이 2명씩 모여 한 주의 강의를 듣고, 요약(중요 부분 표시)하여 올리는 스터디를 했어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함께하게 된 덕분에 개론, 각론, 문풀, 모고 반까지 쭉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p>
좋았던 점	<p>스터디의 장점은 저처럼 의지박약이신 선생님들은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다른 선생님들께 피해주지 않기 위해, 약속을 지키려고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공부도 외롭다보니 스터디를 하며 많은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저는 특히 구술스터디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꼼꼼하게 외우게 되고, 설명하며 더 이해가 깊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읽고, 쓰는 공부 아닌 제가 이해한 것을 직접 말로하게 되니까 공부효과가 더욱 높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공부하다며 보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구술스터디를 통해 이야기도 하고, 서로 모르는 것, 헷갈리는 것 등을 질문하며 이해도 더 깊어지고 잘못된 저의 오개념도 찾아 수정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말하는 연습은 분명 면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p>

나뻐던 점	나뻐던 점이라기 보단 초수였기 때문에 민쌤의 책, 자료 등도 이해하고 소화해내기가 정말 벅찼어요. 그래서 중요도 스테디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 요약하신 것, 다른 강사분들이 중요하다고 한 것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해도 무방해요. 초수이신 분들은 중요도보단 현재 듣고있는 강사분을 믿고 충분히 한 강사분의 것만 소화해도 분명!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

- 기타

슬럼프	<p>1. 나만의 소화행 찾기</p>  <p>저는 5~6월이 가장 힘들었어요. 각론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는.. 아무리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기출, 안전, 법 등등 공부해야 할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심리적인 압박감이 정말 컸어요. 울기도 정말 많이 울고, 집중도 정말 너무 안되서 도서관에 그저 앉아 시간만 보내는 날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마음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활용하여 제게 보상을 주었어요. 예를 들어, 공부를 끝낸 후 저녁엔 보고싶은 드라마 또는 예능 한편, 친구들과 등으로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너무 나약해지지 않기 위하여 임용고시에 꼭 합격해야 할 이유 등을 적어서 책갈피로 만들어 수시로 읽기도 하고 제 책상에 가족, 남자친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즐거운 상상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러한 장치들이 제게 계속해서 첫 마음을 떠올리며 동기 화해주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께서도 용기 내어서 시작하셨으니 스스로 지칠 때 토닥이실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p> <p>2. 쉬어가도 괜찮아</p>  <p>5월에 너무 힘들었을 땐 5일정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너무 공부 안되는 날은 고시문이나 해지랑 정도만 읽고 쿨하게 쉬기도 했답니다. (여행, 공부 끝난 후 집에서 자유시간 갖기, OFF) 충분히 쉬고 난 후 '자연탐구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이해가 안되는 것들은 강의도 다시 듣고, 스테디 선생님들께도 물어보며 최대한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다보니 신기하게도 아! 하며 깨달음이 오더라구요.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도 처음에 '왜 난 전혀 모르겠지?' 하는 마음에 너무 좌절 마시고 쉬는 시간도 갖으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D</p>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을 해보려고 했지만 워낙 운동을 싫어해서 한 5일?정도 줄넘기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도서관 다닐 때 자전거 타기(20분 정도), 물 많이 마시기, 계단 이용하기 등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나름대로의 운동들을 실천했어요. - 그래도 6월정도가 되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각종 영양제(홍삼물, 각종 비타민, 유산균.. 등등)등을 챙겨 먹었어요.

휴대폰	 <p>2018년 10월 10/1 월 - 11/4 일 합계 377시간 29분</p> <p>이번 주 59시간 5분 50시간 9분</p> <p>월 화 수 목 금 토 일 9/24 9/25 9/26 9/27 9/28 9/29 9/30 11.4h 12.6h 13.7h 11.2h 10.2h</p> <p>with FocusTimer</p>	<p>저는 핸드폰이 없으면 더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엔 틴틴이 사용도 하기도 하고, 너무 자주 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Focus Timer란 어플을 다운받아 공부 시간을 재며 최대한 만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어요. 어플에 제 집중 시간, 쉬 시간, 하루 공부시간, 주별, 월별 통계 등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어제보다 더</p> <p>좋은 기록을 달성하기 위한 자극도 되었어요! ♥Tip. 자신이 응시할 교육청 및 교육감 블로그, EBS뉴스, 한국교원신문 등 쉬는 시간에 틴틴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정리해두면 2차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p>
-----	---	--

5. 2차 수험생활

1) 월별 공부 정리

11월~발표전	<p>-민 쌤 무료 강의 듣기, 2차 강의 신청하여 인강 수강, 만능틀 만들기, 기출 연습 및 촬영 시험이 끝난후 1주일 폭 쉬고, 3일정도 더 여행도 다녀왔어요.</p> <p>그 후 함께 공부하던 친구와 함께 둘이서 짝 스터디를 했어요. 민쌤의 면접, 수업실연 무료강의를 1주일동안 모두 듣고 둘이서 1주일간 저희만의 만능틀을 만들었어요.</p> <p>그리고 하이패스, 민쌤의 2차 책, 서울시 교육시책, 뉴스, 각종 도서, 2차 강의 수강 등을 활용하여 매일 만나 저희 집에서 강의를 듣고, 요약한 후 기출문제를 우선으로 촬영하고 연습하며 2주 정도 스터디를 하였어요. 그런데 처음엔 감히 잡히지 않아 하루에 면접 한 세트 or 수업 한 세트 하기도 벅찼어요. 거의 발표 전엔 면접과 수업을 3세트 정도 해본 것 같아요.</p>
발표후~12월 말	<p>-온라인 밴드 스터디 하며 혼자 공부, ㅇxㅇ쌤 직강 3일, 번개스터디 2회</p> <p>발표 후 정말 기뻐지만 기쁨도 잠시 2차의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였어요. 또 사정상 혼자 준비를 하게 되어서 스터디를 구할까 고민도 하였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이동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아 혼자하기로 결정한 후 촬영하여 인증하고 피드백을 다는 온라인 밴드스터디에 가입하였어요.</p> <p>스터디 장 선생님께서 계획하신 계획표에 따라 매일 면접 1세트, 수업 1개(유형별로 2번 정도 해볼 수 있었음)를 촬영하여 올리고 짝수와 홀수를 정하여 번갈아가며 피드백을 주고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되는 스터디다 보니 매일 일찍 일어나서 꼭 실제로 시연하며 촬영할 수 있었어요!</p> <p>그리고 서울 번개스터디를 했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 2번 스터디룸에서 만나 각자 준비해온 문제를 뽑은 후 실제 시험처럼 면접, 수업을 한 세트씩 연습 해 보았어요. 이렇게 처음 뵈는 분들 앞에서 해보니 떨림과 실제 현장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p>
시험 1주일 전	<p>과정안 매일 작성, 면접 2~3세트, 수업 하루에(3~4개) 정도씩 연습했어요.</p> <p>그런데 사실 저는 면접이 가장 걱정되어 과정안과 수업 연습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였어요. 수업을 3~4개씩 하며 촬영을 하였지만 좋지 않은 발문, 잘못된 습관 등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진 못하였어요. 수업보다는 오히려 면접 공부와 시간에 맞춰 말하기 연습, 당황하지 않기 등을 더욱 집중적으로 연습하였어요.</p>

2) 하루 공부 정리

하루 공부 시간	<p>공부시간을 체크하지 않았지만 밴드스터디가 12시까지 촬영하여 올리는 것이 규칙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9시엔 일어나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요. 그리고 12시까지 촬영을 마친 후 점심식사를 하고 컨디션에 따라 5~6시간씩 더 보충하며 공부를 했습니다.</p>
----------	---

공부 사이클	오전	기상 후 세안 및 화장(촬영과 2차를 대비하여 어떤 화장이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릴지 결정하기 위하여 매일 하려고 노력했어요.) -9:00 ~ 12:00 촬영 후 밴드 업로드, 촬영한 것 다시 보고 자가 피드백하기 - ~ 12:40 점심식사 및 휴식
	오후	오후에는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쉬어가기도 하며 면접 공부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였어요. 서울 시책 공부, 교육청 사이트 및 블로그 등 둘러보며 면접에 인용할 것들 요약정리, 선생님들 추천 도서 읽고 정리하기 등 그날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충해가며 시간을 보냈어요. 평균적으로 오후에 6~7시간 정도는 책상에 앉아 계속 무엇인가 생각하고, 정리하고, 끄적이고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며 중간중간 힘들 때 쉬는 시간도 충분히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 불안함에 거의 쉬지 못하고 책상 앞에서 떨었던 것 같아요.
슬럼프	첫 날은 면접, 수업을 구상하고 1세트 촬영하는데 5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구상형 1개, 즉답형 2개, 수업 1개를 하기가 어찌나 어렵던지,,, 사실 수업은 자신있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부족하고 자연스럽지 못해 정말 많이 좌절했어요. 그런데 좋은 온라인 스터디원 분들을 만나 힘이 되는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보여주며 피드백 받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자! 시간 충분해, 할 수 있다!' 라고 계속해서 되뇌이며 나약해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요.	

3) 2차 공부방법: 수업실연, 면접, 교수 학습 과정안

과정안	사실 과정안은 열심히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민쌤의 과정안 강의(1강)를 수강하였고 학원에서 소개해주신 과정안 첨삭 업체가 있어서 3개의 과정안을 첨삭 받았어요.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꼼꼼하게 첨삭해주시고 또 새로운 생각 등도 제안해주셔서 과정안 및 수업실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이패스에 실린 기출문제와 연습문제 정도를 직접 써보고, 예시 답안과 비교하며 고쳐보았습니다.
심층면접	 <p>← 〈서울 면접실 모습〉</p> <p>2차를 보기 2주 전 까지도 구상형 문제에 대한 5분 구상, 5분 답변 및 3분 내 즉답형 대답 등은 정말 꿈도 못 꿀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면접에 나올 수 있는 주제에 대한 공부와 저의 생각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4주간 진행된 민쌤의 면접 강의에서 제공해주신 문제의 양이 정말 많았는데 답변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어요.</p> <p>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공부하시는 동안 가끔 공부가 힘들거나 싫증이 나실 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싶은지, 왜 그러한 교사를 꿈꾸는지 -교사로서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싶은지 -내가 상상하는 나의 교실은 무엇인지 등 <p>‘교사’로서 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러한 생각이 공부에 대한 의지와 즐거움도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p> <p>그리고 처음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다보니 점차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그러니 선생님들께선 처음에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입이 안떨어 지더라고 꼭! 꼭! 말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 제가 연습하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다시 보며 자가 피드백 후 안좋은 버릇, 말투 등은 고치려고 노력하였어요.</p>

<p>수업실연</p>	 <p>← <서울 수업 실연실 모습> 현장에서의 경력이 있어서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2차에서 진행되는 문제를 받아보니 정말 경력이 무색하리만큼 어려웠어요.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을 고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 경력이 없으신 선생님들께서 ‘나는 현장경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정말 안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도 민쌤 2차 강의를 들으며 학생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모습에 감탄하고 좋은 점들을 배운 적이 더욱 많았어요. 그런데 수업보단 면접이 걱정되어 수업은 하루에 1개 정도만 해보고 면접만큼 꼼꼼한 피드백과 수정하여 다시 해보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이러한 연습부족이 결국 실제 실연에서 많은 허점을 드러냈고 그만큼 감점도 정말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면접, 수업 등 모두 저처럼 게을리 하지 마시고 꾸준히 반복 연습하며 좋은 발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p>
-------------	---

4) 스터디

<p>자신이 활용한 스터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인증 밴드 스터디: 매일 9시까지 면접과 수업을 한 세트씩 촬영하여 올리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 스터디였어요. 따로 벌칙은 없었지만 함께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강제적으로 아침 짝 기상하여 연습할 수 있었어요. - 기사 스터디: 다양한 지역의 선생님들이 모여 월별로 돌아가며 유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 연결지어 나올만한 예상 문제 등을 작성하여 올리는 스터디였는데 작년에 서울에서 노키즈존과 같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사적인 부분도 알고있어야 할 것 같아 가입했어요. 기사 스터디 덕분에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접할 수 있었고 생각 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 민쌤 문제 정리 스터디: 민쌤의 2차 면접 강의를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민쌤 면접 답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스터디 덕분에 모든 문제를 다루며 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 서울 번개 스터디: 정말 많은 도움이 된 스터디였어요! 처음 뵈 선생님들 앞에서 실제 시험 처럼 연습을 하니가 실제 시험에서의 두근거림과 마인드 컨트롤 등을 연습할 수 있어 좋았어요. 딱 두 번 진행된 스터디였지만 제가 스스로 피드백 할 땐 발견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 발문 등을 찾을 수 있었고 실제로 다른 선생님들의 면접과 수업을 볼 수 있어서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었어요.
<p>좋았던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스터디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스터디의 좋은 점은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스스로 할 때 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 그리고 2차를 준비하며 느낀 것은 실제 오프라인 스터디가 초수에게는 정말x100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번개스터디를 하며 조금 더 일찍 스터디를 꾸려 했었다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정말 가득했어요. 영상을 촬영하여 올리는 것은 자꾸 스스로 마음에 안들면 멈추고 재촬영을 한다던지, 타이머로 시간을 재긴 하지만 혼자 있으니 조금은 관대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들과 함께하니 더욱 실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연습이 되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초수분들이시라면 꼭! 2차는 오프라인 스터디 하시기를 추천 드리고 싶어요.
<p>나빴던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스터디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빴던 점은 크게 없었어요.

6. 마지막으로

<p>잘했던 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미리 응시한 것 임용고시에 응시할 결정을 한 후 17년 여름에 미리 취득하여 놓았어요. 그래서 18년에는 오직 임용고시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라이벌이 아닌 든든한 동반자로 생각한 것 (feat. 든든한 민쌤♥) 이 이야기는 민쌤께서 정말 많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경쟁한다면 고시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공부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강이기는 했지만 민쌤 강의를 들으며 함께 울고, 웃고 또 항상 해주시는 좋은 격려의 말씀 덕분에 얼마나 큰 힘이 났는지 몰라요. 민쌤 정말 감사드리고 엄-청 사랑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 저는 공부를 하는 동안 힘들 때 합격수기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모든 수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들은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한다!’ 라는 것 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했구요. 모든 사람에게 도착점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모두 다르겠지만, 분명 그 도착점에 선생님께서 꿈꾸시는 것들이 펼쳐져 있을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마시고 꼭!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꼭 응원 하겠습니다:D
<p>후회하는 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시험을 볼 때 너무 많이 떨었던 것 차분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시험을 봤더라면 어이없는 실수로 틀린 소중한 4~5점을 확보할 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귀신이라도 씌인 듯 시험장에선 그게 안보이더라구요.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꼭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하시며 꼭 실력발휘를 모두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2019학년도 서울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2차 답안 복기〉

1. 당일 준비

2차는 1차를 준비할 때보다 더욱 신경 쓸 것들이 많아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갔었는지 최대한 기억나는 것들을 모두 적어보겠습니다!

<p>준비해간 것</p> <p>*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필기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약자료 과정안, 면접 및 수업실연 등 최대한으로 간추린 요약자료를 가져가서 보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떨어져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서울은 안내 등이 시작되면 일절 아무 자료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챙겨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2. 수정 화장품, 실땀, 여유분 머리끈, 여유분 렌즈, 양치할 것 등 번호를 몇 번을 뽑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화장품과 악세사리 등은 모두 여유분으로 다 챙겨갔어요. 그런데 수정화장도 감독관님께 모두 여쭙봐야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눈치보여서 거의 하지는 못했지만 챙겨가지 않았다면 불안했을 것 같아요. 3. 핫팩 생각보다 고사장이 따뜻했어요. 그래도 추우면 더 떨리기 때문에 핫팩 꼭 여유롭게 챙겨가시길 추천드려요. 4. 구두 저는 대기실에서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구두를 따로 챙겨가서 시험보러 들어갈 때 갈아신었어요! 5. 우황청심환 1차를 보기 전에 우황청심환을 미리 먹어보았는데 많이 처지고 또 졸려서 1차를 볼 땐 먹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흑시 몰라 챙겨갔어요. 그런데 정말 챙겨가길 천만 다행이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려 우황청심환을 점심 후에 먹었고 진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p>6. 따뜻한 죽 및 간식(초콜렛 위주), 차(따뜻한 대추차, 물)</p> <p>제가 잘 체하는 편이고 떨리면 음식을 먹기 힘들 것 같아 보온병에 따뜻한 죽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고사장에 샌드위치, 밥 등 다양하고 또 든든하게 먹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각자 취향에 따라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간식을 초콜렛과 파이 등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하나도 못 먹었어요. (너무 떨려서) 물도 화장실 자주 갈까봐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번호가 다가올수록 목이 바짝바짝 마르기 때문에 물과 따뜻한 차 등은 여유 있게 가져가시길 추천 드려요!</p>
<p>당일 날 이동</p>	<p>저희 집에서 고사장까지 지하철을 이용하여 1시간 30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당일 날 이동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 집에서 자고 모두 준비한 후 출발하였어요. 일찍 가면 면접실과 수업실 연실 등 고사장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해서 7:45분 쯤 고사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대기실에 소지품을 모두 놓은 후 실제 실연실에서 인사하는 연습을 하며 실제 실연을 상상해 보았답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들어가서 인사라도 해 본 것이 조금이라도 떨림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장실의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해놓았어요.</p>
<p>복장</p>	<div data-bbox="335 739 574 1265" data-label="Image"> </div> <p>+검정 스타킹, 5cm 검정 구두, 진주 귀걸이, 머리 하나로 묶음</p> <p>옷은 꼭 입어보고 구입하시길 추천 드려요. 저도 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을 찾고 싶어서 동생과 함께 반나절을 아울렛을 돌며 제일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하고 인터넷으로 더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그리고 소매와 기장 등 제게 맞게 수선했답니다. 면접과 수업실연 이틀 모두 이 원피스를 입었구요, 자켓은 따로 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검정+흰색 정장이 너무 입기 싫어서 흰색 원피스를 선택하였는데 실제 고사장에도 밝은 색상 원피스 입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고사실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 듯 해요.) 헤어와 메이크업 모두 제가 직접 하고 갔어요. 화장은 색조 최대한 줄이고 단정하게 하되 아이라인 얇게 점막 채우고, 마스크라 꼼꼼히 하여 조금 더 또렷한 눈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머리는 중단발이라 깔끔하게 아래쪽으로 하나로 모두 묶고 갔어요.</p>

2. 과정안 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령: 만 4세(활동인원 5~6명) -활동유형: 자유선택놀이-쌓기놀이영역 -활동명: 채소밭 구성하기 -생활주제: 동식물과 자연 -주 제: 식물과 우리의 생활 -소 주 제: 식물과 함께 지내는 방법에 대해 관심 가지기 -주요내용: 식물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식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진다. -조건반영: 9:00~14:00 까지 일일계획표 작성(자유선택활동, 대소집단 활동명 포함) 협력적 인성과 누리과정 관련요소(수학적 탐구하기)를 포함하시오 유아중심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발문을 3가지 이상 포함하시오 확장활동을 2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참고사항: 다른 영역에서 놀이하는 유아들을 지도해줄 지원인력 있음
<p>답안 복기</p> <p>시간이 빠듯하여 유의점 및 확장활동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어요. 너무 바쁘게 써서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는 만큼 복기를 하겠습니다!</p>

〈도입〉

바깥놀이 시 텃밭을 가꾼 것 회상, 다양한 텃밭 사진자료 보며 이야기 나누기
오늘의 채소밭 구성하기 활동 소개(유아들이 하고싶다고 이야기 한 것처럼)

〈전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자신이 꾸미고 싶은 텃밭 그리고 발표하였다고 가정

자신이 생각한 텃밭을 좀 더 자세히 설계도로 그리기(모양, 크기)

유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 등 교사가 지원

어떤 블록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블록 준비하기, 구성하기

-친구와 함께 설계도 그리고 구성하는 유아 설정, 채소밭의 모양과 채소의 수 등으로 수학적 탐구하기 반영

〈마무리〉

완성된 유아들은 이름 정하고 소개, 사진 촬영/정리하고 영역 옮기기

더 만들고 싶은 유아들은 더 구성하기

3.면접 복기

1번방: 구상형

A병설유치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바깥놀이(신체활동 포함)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활용방안 5가지를 이야기 하시오.

1. 시설현황: 실외-조합놀이대, 빈 공간

실내-교실, 요리실, 도서실, 자료실, 교무실, 주방

2. 인력: 방과후교사, 에듀케어 교사, 교육실무사, 특수교사

3. 만5세 26명 (특수유아 2명 포함) *특수유아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못한 것 같아요.

4. 학부모: 인지학습 요구, 바깥놀이 및 실체활동 비선호

5. 지역사회시설: 근처 500m 근린공원(도보 10분 이내), 생태학습장(차로 10분 이내)

답안 복기

-바깥놀이는 유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뿐만 아니라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사례 속 교사라면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 바깥놀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첫째, 실외의 조합놀이대의 사용방법 및 안전약속을 유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교사가 만들어 게시하는 것 보다는 유아들과 함께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더 안전할지에 대하여 함께 상의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든 방법과 안전약속 판을 유아들과 글과 그림으로 꾸며 만들고 조합놀이대에 게시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시하여 놓는다면, 유아들이 더욱 잘 기억하고 신경쓰며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빈 공간을 유아와 함께 만드는 공간으로 꾸미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주제별로 유아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으며, 도서실의 책을 활용하여 바깥놀이터에도 책 놀이터 또는 책을 읽는 공간 등 유아들의 생각으로 함께 꾸며나갈 수 있을 거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넓은 공간에서 게임 및 신체표현 등 동적인 활동을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유아들의 생각이 담긴 공간은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에 방문하셨을 때 언제든지 구경하실 수 있고, 바깥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있는 활동들 또한 가정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바깥놀이터에서도 유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선택놀이는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깥놀이를 할 때에도 다양한 놀이를 제시하고 유아들이 자유롭게 여러 놀이를 선택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부모교육을 통하여 바깥놀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깥놀이터는 유아들이 단순히 뛰어노는 공간이 아니라 산책하며 4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며 사회성을 기르고, 실내에서의 긴장감을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정서 발달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약속 판 만들기, 텃밭의 채소 수 세기 등 인지적인 활동까지도 연계되며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깥놀이의 다양한 이점을 부모교육을 통해 알릴 것이며, 유아와 함께 만든 공간을 개방하여 학부모님들이 더욱 관심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도모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을 한달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유아들과 함께 사진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이렇듯 같은 공간에의 방문과 기록을 통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내는 지역사회 또한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된다면 말씀드린 것들을 꼭 실천하여 우리 유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방: 즉답형1 *가장 긴장하고 답안이 부족했던 방이예요. 잘 기억이 안나요ㅠㅠ

아래 제시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말하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강점 3가지를 말하십시오.

-4차업혁명, 유튜브, 5G,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량, 원격의료기기

답안 복기

-사례에서는 '미래교육, 혁신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교육에서도 유아들의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미래혁신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혁신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저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전정신과 용기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셋째, 창의성입니다.

(근거는 진짜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1도 나지를 않아요ㅠㅠ, 후회가 되는 부분은 이 때 대인관계 등도 언급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아요)

추가질의

자신의 강점을 활용한 학급운영방안 3가지를 말하십시오.

답안 복기

-첫째, 도전정신과 용기를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유아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의 상호작용을 하겠습니다.

셋째, 유아들의 재밌는 생각, 창의성 도모를 위해 활동 시 다양한 창의적 사고 기법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3번방: 즉답형2

BTS의 rm은 UN총회 연설에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Love your self)'라고 하였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하고, 유아들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 세가지를 말하십시오.

답안 복기

-제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기 위하여 저는 칭찬일기를 쓰겠습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잘한 점, 또는 칭찬한 점을 1가지씩 찾아 기록해놓고 제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시 되돌아보며 '그래, 난 이런 장점도 있는 사람이었지! 기운 내! 나는 어려움도 잘 극복해나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겠습니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유아를 교육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유아들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칭찬의 날 운영하기입니다. 매일 1~2명의 유아를 선정하고 모든 학급의 유아들이 한 가지씩 친구의 장점을 찾아 칭찬을 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일기와 같이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다른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 이야기하고 또한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장점을 들어보며 자아존중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문이 있는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표현이 존중되는 교실에서 자신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유아들의 이야기에 항상 귀기울이고 재밌는 유아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유아가 스스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셋째, 협력, 우정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 동극활동 등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하며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책임감 또한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을 더욱 단단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수업실연 복기 *감점도 많이 되었고, 기억이 거의 나지 않아요..ㅠㅠ*

- 연령: 만 5세(26명)
- 활동유형: 캠페인 활동
- 활동명: 교통안전 약속을 지켜요
- 생활주제: 교통기관
- 주제: 교통 통신과 교통 생활
- 소 주 제: 안전한 교통질서 지키기
- 주요내용: 교통안전 규칙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다. (2개 정도 더 있었음)
- 조 건: 자신의 수업 의도를 시연 전 1분 이내로 설명하시오.
 도입, 전개, 마무리를 포함하여 시연하시오.
 다른 연령 유아와 협력적 인성 교육 경험을 포함하시오.
 교사의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시연하시오.
 유치원 전체 유아 등하원 현황: 횡단보도이용(50%), 육교(35%), 자차(15%)
 사전활동으로 캠페인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만들었다고 가정하여 시연하시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며 캠페인 진행을 지연시키는 유아가 있는 것을 가정하고 시연하시오
 확장활동으로 지역사회연계를 포함하시오.

답안 복기

- <도입> 어제 활동 회상(캠페인 준비), 오늘 캠페인 소개
- <전개> 함께 준비한 소품과 약속에 대해 회상하며 이야기 나누기
 - 어깨띠, 구호, 약속 판, 포스터 등(횡단보도 팀/육교+자차 팀)
 - 오늘 캠페인을 하며 필요한 약속 정하기
 - 동생 반으로 캠페인 가기 싫다고 하는 유아(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내일은 바깥놀이터로 나가기로 함)
 - 함께 구호 외친 후 2모듬으로 나누어 동생반으로 이동(하모니 선생님 도움)
 - 동생반에서 캠페인 진행(포스터 및 약속 소개, 질문에 대한 답변 등)
 - 교실로 이동
- <마무리> 자료 정리, 캠페인 회상하며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기
 확장활동으로 캠페인 한 것 촬영하여 UCC 제작, 동네에서 캠페인

-반성적 성찰:

1. 다른 연령 유아들과 협력적 인성교육을 할 때 중점을 둔 인성교육의 요소와, 자신의 수업에서 동료교사와 나누고 싶은 우수한 점을 말하시오.
 답안 복기 나눔 / 유아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
2. 자신의 의견을 고집부리며 캠페인 진행을 지연시키는 유아에 대한 다른 교육방안을 이야기 하시오.
 답안 복기 사전에 유아들의 미묘한 변화 더욱 꼼꼼하게 살피기



선생님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꼭 현장에서 봐요!♥